

농경과 세시 풍속의 상관성 연구

이양법의 보급과 단오 풍속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태우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원, 민속학(구비문학) 전공
dogaby98@hanmail.net

- I. 머리말
- II. 이양법의 보급과 농사력의 변화
- III. 모내기철과 단오 절기와의 중첩
- IV. 단오의 축소와 지역별 차이
- V. 맺음말

I. 머리말

세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귀 반복되는 주기적·전승적 생활 행위의 한 체계로 정의된다.¹⁾ 세시 풍속은 일반적으로 농사 관행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왔다. 한민족의 기층문화는 농경문화이므로 “농촌사회에 있어서 세시 관행의 형식이나 내용은 주로 농경생활에 관련되는 전승적 행위의 복합”²⁾이라고 보는 관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세시의 시간적 배치는 태양과 달의 운행, 음양오행과 일진, 점술 등 서로 다른 시간 주기가 일 년의 시간 흐름 속에 배치되어 있다.³⁾ 또한, 세시가 변하는 데는 농경기술의 발전에 따른 농사력의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인 신앙 체계의 변화,⁴⁾ 역법의 도입과 교체,⁵⁾ 풍속의 전파와 향토화⁶⁾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세시 풍속의 발생과 시기, 내용 등을 전적으로 농사 관행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도리어 세시 풍속이 농사 관행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전승되어 왔으나 농사와 같은, 주된 인간 활동에

* 허술한 논문에 대해 넓으신 아량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특히, 논문 심사에서 최근 한국 농업사와 관련된 역사학계의 성과를 소개해 주시고 보강을 제안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전통 역사를 토대로 망종과 단오의 시차를 계산해 주신 한국천문연구원 민병희 박사께도 감사를 드린다.

- 1) 김택규, 「조선 후기의 농경의례와 세시」, 『정신문화연구』 제16호 4권(1993), 83쪽. 이러한 세시는 역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세시풍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김택규(1993), 위의 논문, 81쪽.
- 3) 김태우·민병희·류영희, 「24절기와 세시 체계의 의미와 상관성에 대한 연구」, 『민속학연구』 제40호(2017), 204쪽.
- 4) 정승모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세시풍속을 비교하면서 전기의 불교적이고 도교적인 취향이 후기에 오면 성리학에 바탕을 둔 세시관과 공존·갈등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정승모, 『한국의 농업세시』(일조각, 2012), 98쪽.
- 5) 1654년에 시원력이 도입되면서 청명이 한식보다 하루나 이를 정도 앞서게 되는데 한식이 아닌 청명에 묘에 오르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다. 정승모(2012), 위의 책, 16쪽.
- 6) 1590년 무렵에 쓰여진 심수경의 『견한잡록』에는 “중국에서는 한식에 그네를 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오에 그네를 타니, 명절에 행하는 풍속 역시 무슨 연유로 다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中朝則寒食爲鞦韆。而國俗則端午爲之。俗節所尙亦未知其何緣而異也。]”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한식 무렵에 그네를 타기에는 날이 차가우니 날이 좋은 단오 때 그네를 타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즉, 고상안의 『태촌집』 유희편에서 중국의 상원 장동 풍속이 우리나라 초파일 등석이 되고 중국 한식의 반선(半仙)놀이[그네뛰기]가 오월 단오 풍속으로 된 것은 절후가 중국과 달라 상원일의 맑은 추위가 심하고 한식 때는 바람을 다스릴 수 없기에 날짜를 미루었다고 하였다. 정승모(2012), 앞의 책, 86쪽에서 재인용.

영향을 받아 차츰 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세시 풍속이 농경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농사 시기의 변화에 따라 그 규모나 내용이 변하게 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오 풍속에 주목하고자 한다.

단오는 모내기 시작 전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농경의례적 성격이 강하고⁷⁾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잔치의 성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⁸⁾ 그러나 실상은 시기적으로 모내기철과 단오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모내기가 본격화된 조선후기에는 일에 떠밀려 단오가 쇠퇴하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⁹⁾ 따라서 단오 풍속을 말할 때는 일률적으로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관련 풍속을 정형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대에 따라, 농경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사력의 변화에 따라 단오의 의미와 풍속도 변화해 왔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세시풍속이나 농경세시를 논할 때는 과거 시대별 농사의 시기나 방법, 절기의 변화 등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후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농경기술의 발전 과정과 이에 따른 농사력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이로 인해 단오 풍속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앙법의 보급과 이앙 시기, 단오와 시기적인 중복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앙법이 보편화된 17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앙 시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망종(芒種)과 단오와의 시간적 차이를 추출해 보고 실제 그 중첩의 정도를 알아볼 것이다.

세시와 농경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택규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¹⁰⁾ 그는 단오절을 성장의례의 하나로 보았다. 또한 단오절이 농신제나 화전 등과 함께 모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단오는 모심기 이전에 관행되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농경의례로서 이앙의례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축원·점세(占歲)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이앙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단오는 행해왔고 도리어

7) 김택규(1993), 앞의 논문, 91쪽.

8) 안철환, 『24절기와 농부의 달력』(소나무, 2011), 45쪽.

9) 홍석모 저·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한 권으로 집대성한 우리나라 세시풍속』(풀빛, 2009), 137쪽.

10)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영남대학교 출판사, 1985); 김택규(1993), 앞의 논문.

더 성행했다고 한다면 단오를 이양의례적 성격의 성장 의례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승모는 농사력의 변화에 따라 세시 풍속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석전과 같은 풍속은 고려와 조선 중기까지 단오 때 행해졌지만 조선 후기에는 대보름날로 그 시기가 옮겨졌다. 그 이유는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일에 밀려 단오가 쇠퇴했기 때문으로 보았다.¹²⁾ 이러한 논의는 세시 풍속의 변화를 살필 때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호미씻이 풍속에 관한 연구가 있다. 배영동은 호미씻이와 같이 농경 활동의 주기성으로 비롯된 농경세시의 경우에는 농업 생산의 기술·방식·형태가 변화될 때 새롭게 형성되거나 변모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였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호미씻이 관행은 이양법이 보급된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17-18세기 이양법과 도매 2작 체계가 일반화되고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논 면적이 증가하면서 더욱 집약적인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모내기과 논매기를 위해 두레가 결성되고 1년 중 논매기 작업을 종료한 후 마을 단위 공동 노동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하루를 즐기는 호미씻이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¹⁴⁾ 이처럼 농경세시의 형성과 변화를 기본적으로 농업기술·노동주기·노동력집중도 등과 같은 농업사의 변화 구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¹⁵⁾는 주장 역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이양법의 보급과 농사력의 변화

이처럼 농경세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농사력의 변화는 이양법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양법의 보급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고 농사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양법은 고려시대에도 행해지

11) 김택규(1993), 앞의 논문, 91쪽.

12) 정승모(2012), 앞의 책, 100-101쪽.

13) 배영동, 「조선 후기 호미씻이[세서연(洗耨宴)] 형성의 농업사적 배경」, 『농업사연구』 제2권 제2호(한국농업사학회, 2003), 45쪽.

14) 배영동(2003), 위의 논문, 62쪽.

15) 배영동(2003), 위의 논문.

고 있었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삼남 일부지역과 거기에 가까운 강원도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오면 이양법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말기에 오면 이양법이 논농사를 대표하는 농법이 되었다.¹⁶⁾ 이러한 이양법은 같은 논에 보리를 연작하는 수전종맥법(水田種麥法)을 가능하게 하였다.¹⁷⁾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농사는 '1년 1작'을 근간으로 하는 토지 이용이 일반적이었고 표1¹⁸⁾을 보면, 15세기 전반에는 수전(水田)이 전체의 약 28%에 달하고 면적으로는 약 19%에 불과한 낮은 비중이었다.¹⁹⁾ 15세기까지만 해도 벼의 재배법은 담수직파, 건담직파, 육묘이양 재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직파 재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²⁰⁾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주로 한전(旱田)을 중심으로 농사가 전개되었다. 벼농사는 전체 농업의 20% 내외에 머물렀고 물관리가 불안정한 열등지에 벼를 수전 직파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¹⁾ 그러나 17세기 초에는 삼남지역의 수전의 비율이 43%까지 육박하였고 18세기 말에는 57.2%로 그 비율에 있어 한전을 역전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인 비율에 있어서도 16세기에는 한전과 수전의 비율이 72 대 28이었으나 18세기에는 55.4 대 44.6으로 대등하게 되었다(표1). 이처럼 수전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논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논농사에 따른 관행도 더욱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6) 김용섭, 『(증보판)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II)』(일조각, 1995), 20쪽.

17) 이러한 수전종맥법은 결국 수도(水稻)의 이양법이 보급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양법이 시도된 이유가 애초에 논에 보리를 재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흙의 지력을 이용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것이다.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일조각, 1988), 160쪽.

18) 표1에서 15세기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자료로서 민성기(1988), 위의 책, 201쪽 참조. 17세기와 18세기는 각각 1627년(인조 5), 1784년(정조 8) 자료로서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태학사, 2002), 193쪽, 194쪽 참조.

19) 이호철, 「조선 전기 농경기술의 전개」,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국학자료원, 2003), 230쪽. 특히, 조선 전기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팔도의 논밭 비율은 28대 72로 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민성기(1988), 위의 책, 201쪽.

20) 직파 재배란 이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답에 벼씨를 직접 파종하여 수확하는 재배법으로 논농사 재배 초기부터 관행되던 농법이다. 직파 재배에는 담수 직파와 건담 직파가 있다. 김영진, 「17세기 수도 재배의 기술 체계」,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국학자료원, 2003), 63쪽. 이 때 담수 직파는 논에 물을 가득어 놓은 상태에서 벼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고 건담 직파는 마른 논에 벼씨를 뿌려 어느 정도 모를 키우다가 우기가 되면 물을 가득어 재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영진, 같은 논문, 65-66쪽. 육묘 이양 재배는 일반적인 모내기 방식을 말한다.

21) 이호철(2003), 앞의 논문, 233쪽.

표1-15-18세기 한전과 수전의 비율(단위: %)

	15세기		17세기		18세기	
	旱田	水田	旱田	水田	旱田	水田
충청도	59	41	61.7	38.3	50.1	49.9
전라도	53	47	51.2	48.8	32.8	67.2
경상도	61	39	59.6	40.4	48.8	51.2
계	-	-	57.1	42.9	42.8	57.2
전국	72	28	-	-	55.4	44.6

16-19세기까지 한전과 수전의 비율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 토지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 인구는 68%나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단위 면적당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증명한다.²²⁾ 이렇게 논농사의 비중이 늘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된 것에는 이양법의 보급이 큰 역할을 했다.

이양법은 주지하다시피 원래 일찍이 도입되었으나²³⁾ 17세기 이전까지는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양법이 실시된 경우도 생산력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가보다는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한 제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되었다.²⁴⁾ 그러던 것이 17세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리시설의 확충이다. 즉, 이양법이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리 시설의 미비였다. 논에 물을 가두어 놓고 모를 심어야 하는 이양법의 특성상 적기에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 없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가 늦어져 큰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늘상 이러한 이양법의 폐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 수리시설이 확충되었다. 농사를 위한

22) 이호철(2003), 위의 논문, 232쪽.

23) 이양법은 중국에서는 6세기 전반에, 일본에서는 8세기 후반에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6-8세기에 이양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진(2003), 앞의 논문, 68쪽. 이에 대해 김용섭은 삼국시기에는 아직 이양법이 행해지지 못했다고 보았다. 김용섭(1995), 앞의 책, 12쪽.

24) 이호철(2003), 앞의 논문, 239쪽.

25) 태종 14년(1414) 경상도에서 널리 관행되던 모내기법은 1415년부터 금하라는 태종의 지시가 있었다. 그 이유는 가뭄이 계속되면 모내기를 못한 채 벼농사 전체가 실농(失農)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모내기법에 대한 논쟁이 되풀이 되었다. 김영진·이은용,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389쪽.

수리시설로는 제언(堤堰), 보(洑), 물이 괴어 있는 저(瀦), 샘, 우물 등이 있다. 이 중에 제언은 통상 저수지를 말하는데 16세기 초에는 15세기 후반에 비해 3배가 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4배가 넘었다.²⁶⁾ 이처럼 가뭄에 대비한 시설들이 확충되자 점차 모내기를 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밖에도 이앙법이 보급되었던 원인으로는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서 농민들이 이앙을 하는 것이 직파를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된 것도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이앙을 하면 제초 작업이 줄어들고 절약되는 노동력으로 광작(廣作)을 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앙법은 같은 논에 보리를 연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벼가 흉작이 되더라도 보리로 기근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²⁷⁾

그러면 직파 재배를 했을 때와 이앙 재배가 보편화 되었을 때 농사 관행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사활동의 주기적인 행위 체계를 ‘농사력(農事曆)’²⁸⁾이라고 할 때, 직파 재배를 하는 경우와 이앙 재배를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농사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시대에 따라 그 시기도 약간씩 변동이 있다.

먼저, 파종 시기를 비교해 보자. 표2²⁹⁾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전기와 후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선 전기에는 수경 직파의 경우 조도(早稻)는 2월 상순에서 3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였다. 만도(晩稻)는 청명(4월 5-6일)에서 늦어도 망종(6월 6-7일) 전까지는 파종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법씨의 종류가 파종하는 시기에 따라 더 세분화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조도는 곡우(4월 20-21일) 전후에 파종이 끝난다. 만도는 곡우 후부터 입하(5월 6-7일) 후에 파종하였다. 이렇게 보면 수경 직파의 경우 그 시기가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다소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앙을 하는 경우에도 모판에 법씨를 뿌려야 했다. 조선 전기에 이앙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모판에 음력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사이에 법씨를 뿌렸다. 이앙법이 보편화된 조선 후기에는 모판에 곡우에서 입하 후에 법씨를 뿌렸다. 모판에 법씨를 뿌리는 시기도

26) 김영진·이은용(2000), 위의 책, 390쪽.

27) 김용섭(1995), 앞의 책, 35-38쪽.

28) 김택규(1993), 앞의 논문, 83쪽.

29) 이호철, 「조선 후기 농서의 수도품종 분석」,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국학자료원, 1987), 43쪽.

조선 후기에 더 늦었다. 그런데 이앙을 하는 시기는 시대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 전기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농사직설』(1429)에 의하면, 모가 한 줌 이상 자라면 모를 낸다고 했다.³⁰⁾ 문종 때 기록을 참고하면 그 시기는 대략 음력 4월경이 된다.³¹⁾ 조선 후기에는 표3³²⁾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략 망종 전후에 모내기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는 이앙을 망종에서 하지 사이에 가장 많이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를 넘어 소서에서 초복까지도 확산되어 갔다.³³⁾ 모내기도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에 더 늦게 행해졌다.

과종을 한 이후에 김매기의 빈도와 시기도 수경 직파를 한 경우와 이앙을 한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김매기를 연간 4-5회를 해야 했으나 이앙을 한 경우는 연간 2-3회 정도에 그쳤다.³⁴⁾ 즉, 이앙을 했을 경우에는 김매기의 빈도가 직파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김매기의 노동 강도는 모내기에 비해 월등히 세서 김매기 빈도의 감소는 이앙법이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숙종 24년(1698) 호조판서 이유(李濡)가 “모내기는 일은 반 밖에 안 했어도 공은 배나 되는 고로 각도가 모두 하고 있어 이제 풍속이 되어 버렸다.”고 한 것도 이러한 이앙법의 이로운 점을 말한 것이다.³⁵⁾

이러한 농사 시기의 변화에 따라 농사력도 변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직파를 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도와 만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청명(4월 5-6일) 무렵이면 과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종 후에는 김매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5월 중순 혹은 말까지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 휴지기에 있었던 풍속이 단오다.

그러나 이앙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농사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직파와는 달리 모판에 1차 과종을 한 후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본답에

30) 김영진 역주, 『조선시대 전기 농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52쪽, 55쪽. “苗長一握以上可移栽之.”

31)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25일 갑오. “3월에 과종하면 4월 안에 반드시 모가 날 것이며, 4월에 모가 나면 6월에는 모가 패기 시작할 것이며, 6월에 패기 시작하면 8월이 되지 않아서 이미 단단하게 익을 것이다. [三月播種, 則四月內, 必盡立苗; 四月立苗, 則六月始秀; 六月始秀, 則未及八月, 已堅熟矣。]”

32) 이호철(1987), 앞의 논문, 46쪽. 원래 표에 고상언의 『농가월령』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33) 이호철(1987), 위의 논문.

34) 배영동(2003), 앞의 논문, 56쪽.

35) 김영진·이은웅(2000), 앞의 책, 389쪽.

옮겨 심어야 한다. 이 시기가 대략 망종(6월 6-7일) 무렵이다. 그런데 이 망종은 음력으로 5월 초로 단오 전후로 겹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정 직파가 주류였던 조선 전기에는 단오를 전후하여 휴지기에 있었던 것이 이양법이 보편화된 조선 후기에는 단오는 모내기가 한철인 농번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농사력의 변화는 단오 풍속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 전기 휴지기에 있었던 단오는 노비들은 하루를 쉬었고 석전을 비롯하여 그네뛰기 등 떠들썩했던 명일의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오면 단오 풍속이 현저하게 쇠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양반층을 중심으로 단오 제사나 단오첩 등의 풍속, 민간에서의 그네뛰기 등은 여전히 행해졌지만 과거처럼 떠들썩하게 단오를 치르는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양법이 보편화되면서 단오와 이양의 시기가 중복됨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조선 후기 이양의 시기와 단오가 어느 정도 겹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2-조선 전기와 후기 벼의 파종기와 이앙기 비교(음력 기준, 양력은 괄호의 진한 숫자)

자료	早稻 水耕(早稻)	移秧		晚稻 水耕(水付)	
		秧板(모판)	移種(모내기)		
농사직설 (1429)	- 2월 상순	2월 하순-3월 상순	-	3월 상순-망종절 (6/6-7)	
금양잡록 (1492)	- 3월 상순 (청명, 4/5-6)	-	-	-	
사시찬요초 (1492)	- 2월 춘분(3/21)	-	-	청명(4/5-6)	
거관대요 (19세기초)	早種	곡우(4/20-21) 전	곡우(4/20-21) 전	망종(6/6-7) 시	곡우(4/20-21) 후
	中種	곡우(4/20-21) 후	-	하지(6/21-22) 시	-
	晚種	-	입하(5/6-7) 전후	하지(6/21-22) 후	입하(5/6-7) 후
	最晚	-	-	소서(7/8)-초복 간	-

표3-조선 후기 농서에 나타난 이앙기의 변화(음력 기준, 양력은 괄호의 진한 숫자)

농서	秧板의 피증기			이앙 시기		
	早種	晚種		早種	晚種	
농사직설(1429)	2월 하순-3월 상순			-	-	
농가월령(1619)	청명	입하	소만	소만	次秧(망종)	하지
농가집성(1655)	2월 하순-3월 상순			-	-	
색경(1676)	3월			5월 망종(6/6-7) 전후		
산림경제(18세기 초)	2월 하순-3월 상순			-	-	
증보산림경제(1766)	-	-		5월		
과농소초(1798)	-	-		망종 전	망종 후	
경세유표(1810)	-	-		망종 후 15일		
임원경제지(1842)	3월	4월		4월	5월	

Ⅲ. 모내기철과 단오 절기와와의 중첩

전술한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에는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모내는 전국적인 농사 관행이 되었고 이는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국가에서는 모내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수리 시설과 농서를 확대·보급하였고 각도의 관찰사에게 각별한 관리를 요구하였다. 모내기의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망종 전후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망종 전후가 전국적인 농번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망종은 양력으로 6월 6일 혹은 7일에 해당되며 음력으로 환산하면 4월 중순에서 5월 10일 경까지 분포하며 크게는 30일 정도의 편차를 갖는다(부록 참조)³⁶⁾. 그런데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다. 만약 단오가 모내기의 최대 집중기인 망종과 겹치게 된다면 농사일을 잠시 쉬고 단오를 즐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실제 망종을 중심으로 한 모내기철과 단오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36) 〈부록〉의 표를 비롯하여 그림1, 그림2는 한국전문연구원 민병희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망종의 일자와 음력일 환산에 있어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653-1752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1693-1792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1703-1802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1780-1907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이기원·안영숙·민병희·신재식, 「한국 역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내용 분석」, 『천문학논총』 26(1)호(2011), 1-24쪽; 전용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 시헌력 시행과 절기 배치법에 대한 논란」, 『동방학지』 117집(2002), 1-49쪽.

살펴보자. 이에 앞서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망종은 이앙의 적기(適期)이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언제 이앙을 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씌어진 일기류를 토대로 당시 농력(農曆)을 복원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농가의 이앙기는 표4와 같다.³⁷⁾

표4-16-18세기 농가의 이앙 시기

작품명	작가	시기	지역	이앙 시기
농가설(農家說)	유팽로	16세기 후반	전라도 옥과	입하-소만-망종
농가월령(農家月令)	고상안	17세기 초반	경상도 상주	소만-망종-하지
송간일기(松澗日記)	이정회	1577-1612	경상도 안동 일대	4월-5월
계암일록(溪巖日錄)	김령	1603-1641	경상도 예안	6개년: 망종 이전(通時) 13개년: 하지 이후(晩時)
죽소일기(竹所日記)	권별	1625-1626	경상도 예천	음력 4월 28일-6월 3일
승충명록(勝聰明錄)	구상덕	1725-1761	경상도 고성	소만 이후-하지 후 5일
농설혹문(農說或問)	박형덕	18세기 후반	전라도 보성	망종 후-하지 전

위에서처럼 실제 농가에서는 망종 전후에 이앙을 하기도 했지만 망종을 넘겨 하지 전후까지도 빈번하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앙의 적기가 아무리 망종 전후라 해도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망종을 넘겨 하지 이후에라도 이앙을 해야 했던 현실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이앙법이 보편화되었을 17-18세기경에는 망종을 전후 하여 이앙에 충분한 비가 내려주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앙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단오절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만약 단오절이 망종과 겹쳐 있는 시기에 비가 내렸다면 단오를 전후하여 이앙이 일제히 시작되었을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단오에도 비를 기다리느라 온전히 명절을 즐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절기상 망종과 음력인 단오가 실제 얼마나 겹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단오절 풍속의 성쇠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림1은 1653년부터 1909년까지 백중력에서 추출한 망종의 일자와

37) 엄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태학사, 2002), 373-396쪽을 참조하여 표4를 작성하였다. 『송간일기』의 경우는 김상태, 『《농사직설》과 조선 초기의 농업 실태』, 인하대 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91쪽을 참조하였다.

단오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단오는 음력으로 설정되므로 양력인 망종의 일자를 음력으로 환산하였다. 이 음력으로 환산한 망종 일자에서 단오 일자를 뺀 차이(이후 'Δ(망종-단오)'로 표기)는 -21일에서 10일 사이를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약 1삭월(朔月)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림1에서 Δ(망종-단오)이 양수면 그 해의 망종이 단오 뒤에 오는 것이다. 반대로 그 수치가 음수면 단오 전에 망종이 오는 것이다.³⁸⁾ 그림1을 보면 망종과 단오의 차이는 음과 양이 계속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망종이 단오보다 먼저 오기도 하고 나중에 오기도 하는 등 일정치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2는 1653년부터 1909년까지 257년간 망종과 단오의 일수 차이별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상으로 보더라도 음수 일자가 월등히 많다. 즉, 단오 전에 망종이 오는 경우가 단오 후에 오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는 의미이다. 실제 망종과 단오의 일수 차이 평균은 -5.5일로 평균적으로 망종이 5-6일 앞선다. 이상적으로는 망종 무렵에 이앙을 마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대부분 이앙을 마치고 단오를 맞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내기는 공동 노동의 형태로 진행되며 두레와 같은 노동 조직이 중심이 된다.³⁹⁾ 어떤 지역에서 모내기가 시작되면 모든 논에 모내기가 끝나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모내기를 망종 전후에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이상 분포하는 모내기 철에 단오는 거의 예외 없이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적어도 이앙법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농번기와 단오가 겹쳐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단오 풍속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38) 그림1에서 윤달이 든 해마다 윤달이 든 월을 표시했다. 그런데 아래 단에는 윤 1-4월에 드는 해를 표시한 것이고 위 단에는 윤 5-12월에 드는 해를 표시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나눈 것인데 윤 1-4월이 있는 해에는 Δ(망종-단오)의 수치가 대부분 최소이자 음수가 되는 경우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대로 윤 5-12월(위 패널)이 있는 해에는 Δ(망종-단오)가 증가 추세의 끝점이자 양수로 나타난다.

39) 배영동(2003), 앞의 논문, 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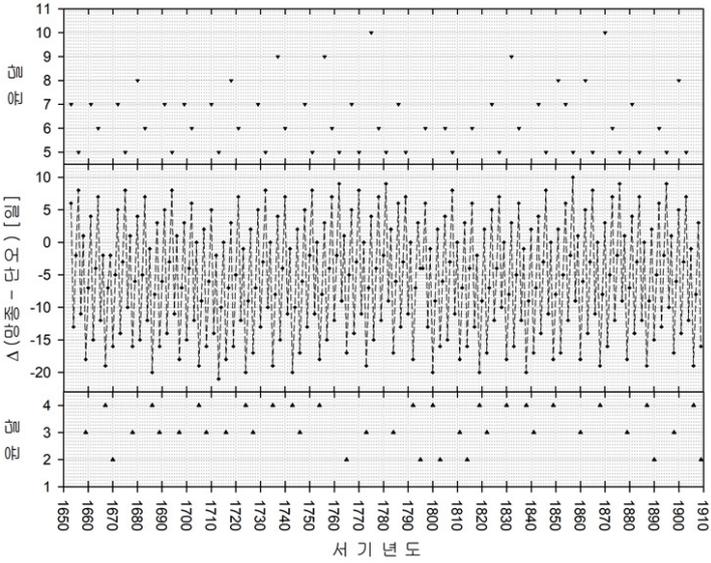


그림1-17세기 이후 매년 망종과 단오의 일수 차이(단오-망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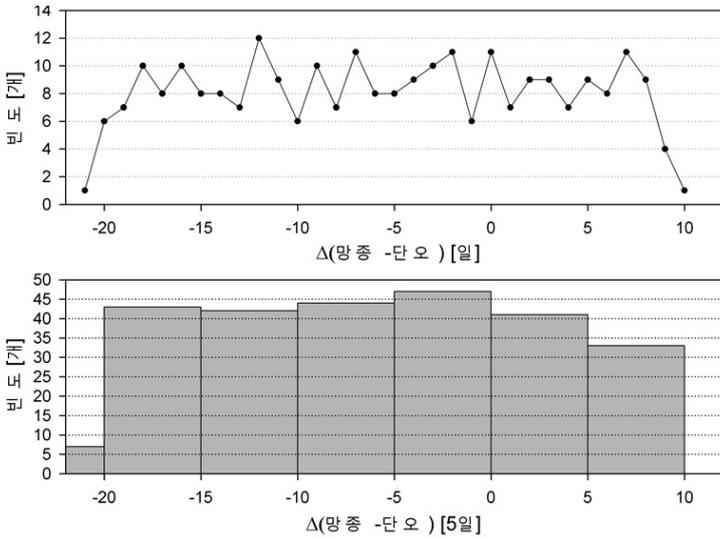


그림2-257년간 망종과 단오의 일수 차이(단오-망종)별 빈도수

IV. 단오의 축소와 지역별 차이

그렇다면 실제 이양법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단오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단오 풍속으로는 석전, 씨름, 그네뛰기 등이 성행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석전이 정월 대보름 행사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단오 때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서는 단오 때 행해졌던 석전에 대해 “나라의 풍속에 따르면 단오(端午) 때가 되면 시정의 무뢰배들이 큰 거리에 떼로 모여 좌우 패로 나누어서 기왓장과 자갈을 손에 쥐고 서로 공격하거나, 혹은 짧은 몽둥이로 뒤섞여 싸워서 승부를 결정하였는데, 이것을 석전(石戰)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⁴⁰⁾ 고려 말 문신인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시고(牧隱詩藁)」에 ‘단오날의 석전(石戰)’이라는 시가 있다. 이 시에서는 “해마다 단오날엔 악바리 청년들 모여들어 양 편으로 갈라서서 돌 날리며 싸우는데 마시장 냇가에 아침부터 집결을 하였다가 승재 지내는 절 북쪽에 저녁에야 돌아오네.”라고 하였다.⁴¹⁾ 『고려사』에서 기술한 석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석전은 조선시대에도 행해졌다. 『동국세시기』에서는 김해 지방 풍속으로 단오날 행해졌던 대규모의 석전을 소개하고 있다.⁴²⁾

그러나 같은 『동국세시기』에서 석전은 정월 보름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소개되어 있다. 정월 보름이면 서울의 만리현과 우수현, 경상도 안동 지방,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석전이 성행했다고 하였다.⁴³⁾ 이처럼 석전은 고려-조선 초에는 단오에 행해졌던 풍속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오면서 정월 보름 풍속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전술했던 단오의 쇠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⁴⁾

아래는 조선 전기 단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성현(成俔, 1439-1504)의 시다.⁴⁵⁾

40) 『고려사(高麗史)』 134권, 우왕전(禡王傳) 6년조.

41) 이색, 『목은집』, 목은시고 제29권, 시(詩). “年年端午聚群頑 / 飛石相攻兩陣間 / 馬市川邊朝已集 / 僧齋寺北暮方還”

42) 홍석모 저·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한 권으로 집대성한 우리나라 세시풍속』(폴빛, 2009), 133쪽.

43) 홍석모 저·정승모 역, 위의 책(2009), 70-71쪽.

44) 정승모(2012), 앞의 책, 101쪽.

5월

節中南訛萬彙盛 때는 한창 여름이라, 만물이 무성하고
 榆柳村墟日初永 느름·버들 촌락에 해가 처음 길어지네
 北里榴花映短籬 뒷마을 석류꽃은 울타리를 비추고
 南隣稚竹蔭歸徑 앞집 어린 대는 오솔길에 그늘졌네
 平丘綠浪着暗黃 언덕의 녹음 물결이 누런빛을 띠는데
 杵臼紛紛芳餌餅 집집 절구에선 맛난 떡을 찧는 소리
鞦韆門巷過端午 단오날 무렵에는 여기저기 그네 뛰기
芡葉翻翻散還聚 모시 적삼 필렁필렁 모였다가 흩어지네
萬畝秧針翠撥雲 논에 벼모는 구름처럼 푸르네
 鳩婦喚雨聲正苦 비둘기는 비를 불러 “구구구” 울음 우네

위의 시에서 단오 무렵에 떡을 찧고 여기저기서 그네를 뛰는 모습은 여실히 명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시 중에서 눈에 벼모는 구름처럼 푸르다고 한 대목이 주목된다. 단오 무렵에 눈에 모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양법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찌감치 수경 직파한 벼가 제법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현은 또 다른 글에서 단오의 풍속을 기술하고 있다.

5월 5일은 단오(端午)라 하여 애호(艾虎)를 문에다 걸고 창포(菖蒲)를 술에 띄우며, 아이들은 축으로 머리를 감고 창포로 띠를 하며, 또 창포 뿌리를 뽑아 수염처럼 붙였다. 도인(都人)들은 길거리에 큰 나무를 세워 그네놀이를 하였고, 계집아이들은 모두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고 길거리에서 떠들썩하게 채색한 줄을 잡고 서로 다투며, 젊은이들은 몰려와서 이것을 밀고 끌고 하여 음란(淫亂)한 장난이 그치지 않았는데, 조정에서 이것을 금하여 지금은 성행하지 않게 되었다.⁴⁵⁾

위에서 도인(都人)이라는 것을 보아 도회지의 단오 풍경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축으로 만든 호랑이를 문에 걸어 놓기, 창포주와 창포에 머리 감기, 그네뛰기 등 당시 단오의 풍속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16세기 중반의 정황을 보여주는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 중에 단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노비들은 명일(名日)이라서 일을 하지 않았고 감나무에 그네를 땀터니 노비와 이웃사람이 다투어 올라타서

45) 성현(成俔), 「전가사 십이수(田家詞十二首)」, 『동문선』 속동문선 제5권, 칠언고시(七言古詩).

46) 성현, 『용재총화』 제2권.

서로 밀어주었다고 하였다.⁴⁷⁾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농촌이건 도회지건 단오는 흥성거리는 명절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로 오면 단오의 풍경에 변화가 나타난다. 다만, 도회지나 양반층에서는 단오 풍속이 별반 다르지 않게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즉, 단오 무렵에 모내기를 비롯하여 누에치기나 보리 베기와 타작 등으로 무척 분주한 정황이 나타난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그의 시에서 단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⁴⁸⁾

石榴紅綻近端陽 단오절 가까운 때에 석류꽃 붉게 피니
事事幽閑事事忙 일마다 한적하고도 일마다 바쁘구려
天賜暫晴容曬繭 하늘은 잠시 맑아 주어 누에고치를 말리겠고
地留春水賴移秧 땅에는 봄물이 고여 모내기를 할 만하네

위의 시에서 다산은 단오 무렵을 한적하고도 바쁜 시절이라고 하였다. 석류꽃이 붉게 피어 여름이 본격화되는 시절이기에 한적할 수 있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이 무렵에 누에고치를 말리고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는 등 분주할 때이기에 바쁜 시절이라고 한 것이다.

정학유(丁學游, 1786-1855)가 현종 때 쓴 「농가월령가」에는 19세기 초반 오월 단오의 풍경이 잘 나타나 있다.

오월 오일 단옷날에 물색(物色)이 생신(生新)하다.
.....
향촌의 아녀들이 추편(鞦韆)은 말러니와
청홍상(靑紅裳) 창포비녀 가절(佳節)을 허송마라.
노는 틈에 하올 일이 약쑥이나 베어두소.
상천(上天)이 지인(至仁)하사 유연히 작운(作雲)하니
때 미쳐 오는 비를 뉘 능히 막을쏘나.
처음에 부슬부슬 먼지를 적신 후에
밤 들어오는 소리 쾌연(沛然)히 드리운다.
관솔불 둘러 앉아 내일 일 마련할 제

47) 『목재일기』, 가정(嘉靖) 30년(1551) 신해년(辛亥歲) 5월 5일. “奴人等以名日不役事…… 縛秋千于柶木, 奴婢、隣人爭登相送.”

48) 「여름날 전원의 여러 가지 흥취를 가지고 범양 이가의 시체를 모방하여 이십사 수를 짓다[夏日田園雜興效范楊二家體二十四首] 신묘년」, 『다산시문집』 제7권, 시(詩), 천진소요집(天真消搖集).

뒷논은 누 심고 앞밭은 누가 갈꼬.
도롱이 접사리며 샷갓은 몇 벌인고.
모찌기는 자네 하소 논 삼기는 내가 함세.⁴⁹⁾

위의 작품에서 보더라도 당시 단오가 한가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녀자들에게는 노는 틈에 약쑥이라도 베어 놓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구나 단오에 맞추어 그날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점점 빗줄기가 강해지자 날이 새면 즉시 모내기를 할 것을 의논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비록 예로부터 명절인 단오라 할지라도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마음 편히 즐길 수도 없을뿐더러 비라도 올라치면 만사를 제쳐두고 모내기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매천 황현(黃玹, 1855-1910)이 고종 32년(1895) 단오날에 쓴 시에서도 “손뿔아 세 보니 누에 치고 보리 벨 때이건만 농가의 절기는 윤년이라 더디기만 하구나.”라는 부분이 나온다.⁵⁰⁾ 단오 무렵이 누에 치고 보리 벨 때라는 것이다.

이처럼 5월 단오 무렵은 보리를 거두고 모를 내기에 무척 바쁜 절기이다. 농가에서는 이때쯤에 보리 베기에 이어 콩 심기와 모내기가 동시에 벌어지므로 ‘삼그루판’이라고 하여 가장 바쁜 때로 여겼다.⁵¹⁾ 따라서 보리에 이어 벼농사가 곧바로 연계되는 ‘도맥2작 체계’와 이양법이 보편화된 조선 후기에는 과거처럼 흥성거리는 명절로서 단오를 지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오 풍속은 점차 쇠퇴하고 일부 그네뛰기 정도의 풍속만 지속되었던 것을 보인다.

그런데 일제 때 조사·보고된 『조선의 향토요락』을 보면 지역에 따라 단오 풍속에 차이가 나타난다. 경기 이남으로는 단오 풍속으로 대부분은 그네타기만 보고되어 있다. 그네타기 외에 씨름이 단오 풍속으로 보고된 것은 서울, 경기도 개성, 김포, 연천, 양평, 장단, 진위, 전라남도 담양, 경상북도 고령, 경상남도 사천, 거창 등이 전부이다. 그 외 지역에서 씨름은 대부분 백중이나 추석 때 행해진다.

그러나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경기 이북 지역, 즉 황해도, 평안도,

49) 정학유, 「농가월령가」; 정승모(2012), 앞의 책, 61쪽에서 재인용.

50) 황현, 「단오에 사길과 함께 육률의 운을 뽑아서 짓다(端午與士吉拈陸律韻)」, 『매천집』 제1권, 시(詩), 을미고(乙未稿). “屈指蠶時與麥時 / 農家天氣閏年遲”

51) 홍석모 저·정승모 역(2009), 앞의 책, 137쪽.

함경도에서는 단오에 대부분 그네뛰기와 함께 씨름을 했다.⁵²⁾ 이는 경기 이남 지역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경기 이남과 이북은 논농사 우세 지역과 밭농사 우세 지역으로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조선의 향토오락』이 충실하게 조사되었다고 간주한다면 논농사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단오에 씨름과 같은 행사가 거의 없이 그네뛰기만 행해졌으며 밭농사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그네뛰기와 함께 씨름 등도 행해졌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술했던 이양법이 보편화됨으로 인해 단오 풍속이 쇠퇴되고 단오에 대한 명절 인식도 점차 약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⁵³⁾

V. 맺음말

이 연구는 세시 풍속이라는 민속 현상이 단순히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혹은 과학적인 사고나 생활 관행으로 인해 변화 내지는 쇠퇴하였다고 보는 통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시 풍속을 고정된 형태로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도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오라는 풍속에 주목하여 과거 4대 명절로 일컬어졌

52)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황해도에는 연백, 금천, 평산, 신계, 장연, 송화, 은율, 안악, 신천, 재령, 황주, 봉산, 서흥, 수안, 곡산, 해주 등이 있다. 평안남도에는 진남포, 대동, 순천, 맹산, 성천, 중화, 용강, 강서, 평원, 안주, 덕천, 영원 등이 있고 평안북도에는 의주, 구성, 태천, 운산, 회천, 영변, 정주, 선천, 철산, 용천, 삭주, 창성, 벽동, 초산, 위원, 강계, 자성 등이 있다. 함경남도에는 정평, 영흥, 고원, 문천, 덕원, 안변, 홍원, 북청, 이원, 신흥, 갑산 등이 있으며 함경북도에는 경성·나남, 명천, 길주, 성진, 부령, 무산, 온성, 경원, 경흥 등이 있다. 강원도에는 춘천, 통천, 영월, 평강, 이천 등이 있다. 村山智順 著·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집문당, 1992).

53) 이와 같이 경기 이남과 이북의 경계는 마치 김택규가 주장한 단오권과 추석권의 구분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구분을 할 때 주요하게 제시한 기준이 “추석을 중시하는 지역과 단오를 중시하는 지역이 갈려 있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김택규(1993), 앞의 책, 452쪽.) 그렇다면 그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단오에 대한 인식과 풍속은 원래부터 그러했다기보다는 농경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 이남 지역, 김택규 식으로 말하면 추석권에 속하는 지역들이 과연 과거부터 단오보다 추석을 중시했는가 하는 점과 경기 이북 지역, 즉 단오권의 지역들이 과연 과거부터 단오를 더 중시했는가 하는 점이 동시에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원래 단오는 전국적으로 중시되고 크게 치러졌지만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논농사를 많이 지었던 경기 이남 지역은 단오가 쇠퇴하게 되었고 논농사가 많지 않은 경기 이북 지역이나 해안 지역은 여전히 단오가 중시되고 크게 치러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던 명절이 어떠한 이유로 쇠퇴되었고 그 인식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중에 이앙법의 보급과 이로 인한 농사력의 변화가 단오를 쇠퇴시켰다는 주장에 주목하여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17세기 이후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사력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수경 직파가 주류였던 조선 전기에는 단오를 전후하여 휴지기에 있었던 것이 이앙법이 보편화되면서 모내기가 한철인 농번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농사력의 변화는 단오 풍속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모내기철과 단오가 어느 정도 중첩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앙법이 보편화된 17세기, 즉 1653년부터 1909년까지의 역서를 토대로 망종의 일자와 단오의 일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망종과 단오는 약 30일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났으며 평균적으로는 망종이 단오보다 5-6일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지역의 모내기가 망종 전후로 하여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그 한 달 내에 단오는 거의 예외 없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앙법이 보편화된 조선 후기에는 농번기와 단오가 겹쳐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단오가 축소된 모습과 지역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노비들은 하루를 쉬었고 석전과 그네뛰기 등으로 흥성거렸던 단오는 조선 후기에 오면 누에치기와 보리 베기, 그리고 모내기를 하느라 분주해진 일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이 끝난 저녁이나 아니면 낮에 잠깐 짬을 내어 그네뛰기 정도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일제 때 조사 자료인 『조선의 향토오락』을 검토해 본 결과 경기 이남에서는 단오 때 그네뛰기 외에는 거의 다른 풍속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발농사가 위주인 경기 이북 지역은 대부분 그네뛰기 외에도 씨름도 함께 행해졌다. 이는 경기 이남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이앙법이 보편화된으로써 단오 풍속이 쇠퇴되고 단오에 대한 명절 인식도 약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건한잡록』, 『고려사』, 『농가월령』, 『농가월령가』, 『다산시문집』, 『동문선』, 『매천집』, 『목은집』, 『목재일기』, 『문종실록』, 『송간일기』, 『용재총화』, 『태촌집』.

1653-1752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1693-1792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1703-1802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1780-1907백중력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14).

2. 단행본

김영진 역주, 『조선시대 전기 농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김영진·이은웅,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김용섭, 『(증보판)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II)』. 일조각, 1995.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영남대학교 출판사, 1985.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1988.

안철환, 『24절기와 농부의 달력』. 소나무, 2011.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정승모, 『한국의 농업세시』. 일조각, 2012.

村山智順 저·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홍석모 저·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한 권으로 집대성한 우리나라 세시풍속』. 풀빛, 2009.

3. 논문

김상태, 『《농사직설》과 조선 초기의 농업 실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140쪽.

김영진, 「17세기 수도 재배의 기술 체계」.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61-87쪽.

김태우·민병희·류영희, 「24절기와 세시 체계의 의미와 상관성에 대한 연구」. 『민속학연구』 제40호, 국립민속박물관, 2017, 191-217쪽.

김택규, 「조선 후기의 농경의례와 세시」. 『정신문화연구』 제16호 4권, 1993, 81-105쪽.

배영동, 「조선후기 호미씻이(세서연(洗鋤宴)) 형성의 농업사적 배경」. 『농업사연구』 제2권 제2호, 2003, 45-63쪽.

- 이기원·안영숙·민병희·신재식, 「한국 역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내용 분석」.
『천문학논총』 26(1)호, 2011, 1-24쪽.
- 이호철, 「조선 전기 농경기술의 전개」.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223-253쪽.
- _____, 「조선후기 농서의 수도품종 분석」.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 국학자료원,
1987, 29-59쪽.
- 전용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 시현력 시행과 절기 배치법에 대한
논란」. 『동방학지』 117집, 2002, 1-49쪽.

[부록] 조선 후기 망종과 단오의 시기별 차이

서기년도	연호	역법	망종 (음력)	대소	윤달	단오	망종-단오
1653	순치10	대통력	5.11.	소	7	5.05.	6
1654	순치11	시헌력	4.22.	대		5.05.	-13
1655	순치12	시헌력	5.03.	대		5.05.	-2
1656	순치13	시헌력	5.13.	소	5	5.05.	8
1657	순치14	시헌력	4.24.	대		5.05.	-11
1658	순치15	시헌력	5.06.	대		5.05.	1
1659	순치16	시헌력	4.17.	대	3	5.05.	-18
1660	순치17	시헌력	4.28.	대		5.05.	-7
1661	순치18	시헌력	5.09.	소	7	5.05.	4
1662	강희01	시헌력	4.19.	소		5.05.	-15
1663	강희02	시헌력	5.01.	소		5.05.	-4
1664	강희03	시헌력	5.12.	대	6	5.05.	7
1665	강희04	시헌력	4.22.	소		5.05.	-12
1666	강희05	시헌력	5.03.	소		5.05.	-2
1667	강희06	대통력	윤4.16.	대	4	5.05.	-19
1668	강희07	대통력	4.27.	소		5.05.	-7
1669	강희08	대통력	5.03.	소		5.05.	-2
1670	강희09	시헌력	4.18.	소	2	5.05.	-16
1671	강희10	시헌력	4.29.	소		5.05.	-5
1672	강희11	시헌력	5.10.	소	7	5.05.	5
1673	강희12	시헌력	4.21.	대		5.05.	-14
1674	강희13	시헌력	5.02.	대		5.05.	-3
1675	강희14	시헌력	5.13.	소	5	5.05.	8
1676	강희15	시헌력	4.24.	소		5.05.	-10
1677	강희16	시헌력	5.06.	대		5.05.	1
1678	강희17	시헌력	5.19.	대	3	5.05.	-16
1679	강희18	시헌력	4.28.	소		5.05.	-6
1680	강희19	시헌력	5.09.	소	8	5.05.	4
1681	강희20	시헌력	4.19.	소		5.05.	-15
1682	강희21	시헌력	4.30.	대		5.05.	-5
1683	강희22	시헌력	5.12.	대	6	5.05.	7
1684	강희23	시헌력	4.23.	대		5.05.	-12
1685	강희24	시헌력	5.04.	대		5.05.	-1
1686	강희25	시헌력	윤4.15.	대	4	5.05.	-20
1687	강희26	시헌력	4.27.	대		5.05.	-8
1688	강희27	시헌력	5.08.	대		5.05.	3
1689	강희28	시헌력	4.18.	소	3	5.05.	-16

1690	강희29	시현력	4.28.	소		5.05.	-6
1691	강희30	시현력	5.10.	소	7	5.05.	5
1692	강희31	시현력	4.21.	대		5.05.	-14
1693	강희32	시현력	5.02.	소		5.05.	-3
1694	강희33	시현력	5.13.	소	5	5.05.	8
1695	강희34	시현력	4.24.	대		5.05.	-11
1696	강희35	시현력	5.06.	소		5.05.	1
1697	강희36	시현력	4.17.	대	3	5.05.	-18
1698	강희37	시현력	4.27.	소		5.05.	-7
1699	강희38	시현력	5.08.	소	7	5.05.	3
1700	강희39	시현력	4.19.	소		5.05.	-15
1701	강희40	시현력	5.01.	대		5.05.	-4
1702	강희41	시현력	5.11.	소	6	5.05.	6
1703	강희42	시현력	4.22.	소		5.05.	-12
1704	강희43	시현력	5.05.	대		5.05.	0
1705	강희44	시현력	윤4.15.	소	4	5.05.	-19
1706	강희45	시현력	4.26.	대		5.05.	-9
1707	강희46	시현력	5.07.	대		5.05.	2
1708	강희47	시현력	4.18.	소	3	5.05.	-16
1709	강희48	시현력	4.28.	소		5.05.	-6
1710	강희49	시현력	5.10.	대	7	5.05.	5
1711	강희50	시현력	4.21.	대		5.05.	-14
1712	강희51	시현력	5.03.	대		5.05.	-2
1713	강희52	시현력	5.14.	대	5	5.05.	-21
1714	강희53	시현력	4.24.	소		5.05.	-10
1715	강희54	시현력	5.05.	소		5.05.	0
1716	강희55	시현력	4.17.	대	3	5.05.	-18
1717	강희56	시현력	4.27.	소		5.05.	-7
1718	강희57	시현력	5.08.	소	8	5.05.	3
1719	강희58	시현력	4.19.	대		5.05.	-16
1720	강희59	시현력	4.30.	대		5.05.	-5
1721	강희60	시현력	5.12.	대	6	5.05.	7
1722	강희61	시현력	4.23.	대		5.05.	-12
1723	웅정01	시현력	5.04.	소		5.05.	-1
1724	웅정02	시현력	윤4.14.	소	4	5.05.	-20
1725	웅정03	시현력	4.26.	대		5.05.	-9
1726	웅정04	시현력	5.07.	대		5.05.	2
1727	웅정05	시현력	4.17.	소	3	5.05.	-17
1728	웅정06	시현력	4.28.	대		5.05.	-7
1729	웅정07	시현력	5.10.	소	7	5.05.	5

1730	웅정08	시현력	4.21.	소		5.05.	-13
1731	웅정09	시현력	5.02.	소		5.05.	-3
1732	웅정10	시현력	5.13.	소	5	5.05.	8
1733	웅정11	시현력	4.24.	소		5.05.	-10
1734	웅정12	시현력	5.05.	소		5.05.	0
1735	웅정13	시현력	윤4.16.	대	4	5.05.	-19
1736	건릉01	시현력	5.26.	소		5.05.	-8
1737	건릉02	시현력	5.09.	대	9	5.05.	4
1738	건릉03	시현력	4.19.	소		5.05.	-15
1739	건릉04	시현력	5.01.	대		5.05.	-4
1740	건릉05	시현력	5.12.	대	6	5.05.	7
1741	건릉06	시현력	4.23.	소		5.05.	-11
1742	건릉07	시현력	5.04.	소		5.05.	-1
1743	건릉08	시현력	윤4.14.	소	4	5.05.	-20
1744	건릉09	시현력	4.25.	대		5.05.	-10
1745	건릉10	시현력	5.07.	대		5.05.	2
1746	건릉11	시현력	4.18.	대	3	5.05.	-17
1747	건릉12	시현력	4.29.	대		5.05.	-6
1748	건릉13	시현력	5.10.	대	7	5.05.	5
1749	건릉14	시현력	4.22.	대		5.05.	-13
1750	건릉15	시현력	5.03.	대		5.05.	-2
1751	건릉16	시현력	5.13.	소	5	5.05.	8
1752	건릉17	시현력	4.23.	소		5.05.	-11
1753	건릉18	시현력	5.05.	소		5.05.	0
1754	건릉19	시현력	윤4.16.	소	4	5.05.	-18
1755	건릉20	시현력	4.27.	대		5.05.	-8
1756	건릉21	시현력	5.08.	소	9	5.05.	3
1757	건릉22	시현력	4.19.	소		5.05.	-15
1758	건릉23	시현력	5.01	소		5.05.	-4
1759	건릉24	시현력	5.12.	대	6	5.05.	7
1760	건릉25	시현력	4.22.	소		5.05.	-12
1761	건릉26	시현력	5.03.	소		5.05.	-2
1762	건릉27	시현력	5.14.	소	5	5.05.	9
1763	건릉28	시현력	4.25.	소		5.05.	-9
1764	건릉29	시현력	5.06.	소		5.05.	1
1765	건릉30	시현력	4.17.	소	2	5.05.	-17
1766	건릉31	시현력	4.29.	소		5.05.	-5
1767	건릉32	시현력	5.10.	소	7	5.05.	5
1768	건릉33	시현력	4.21.	대		5.05.	-14
1769	건릉34	시현력	5.02.	소		5.05.	-3

1770	건륭35	시헌력	5.13.	소	5	5.05.	8
1771	건륭36	시헌력	4.24.	대		5.05.	-11
1772	건륭37	시헌력	5.05.	대		5.05.	0
1773	건륭38	시헌력	4.16.	대	3	5.05.	-19
1774	건륭39	시헌력	4.28.	대		5.05.	-7
1775	건륭40	시헌력	5.09.	대	10	5.05.	4
1776	건륭41	시헌력	4.19.	소		5.05.	-15
1777	건륭42	시헌력	5.01.	대		5.05.	-4
1778	건륭43	시헌력	5.12.	소	6	5.05.	7
1779	건륭44	시헌력	4.22.	소		5.05.	-12
1780	건륭45	시헌력	5.03.	소		5.05.	-2
1781	건륭46	시헌력	5.14.	대	5	5.05.	9
1782	건륭47	시헌력	4.26.	대		5.05.	-9
1783	건륭48	시헌력	5.07.	대		5.05.	2
1784	건륭49	시헌력	4.18.	대	3	5.05.	-17
1785	건륭50	시헌력	4.28.	소		5.05.	-6
1786	건륭51	시헌력	5.11.	대	7	5.05.	6
1787	건륭52	시헌력	4.21.	소		5.05.	-13
1788	건륭53	시헌력	5.02.	대		5.05.	-3
1789	건륭54	시헌력	5.12.	소	5	5.05.	7
1790	건륭55	시헌력	4.23.	대		5.05.	-11
1791	건륭56	시헌력	5.05.	소		5.05.	0
1792	건륭57	시헌력	윤4.16.	소	4	5.05.	-18
1793	건륭58	시헌력	4.27.	소		5.05.	-7
1794	건륭59	시헌력	5.08.	소		5.05.	3
1795	건륭60	시헌력	4.20.	대	2	5.05.	-4
1796	가정01	시헌력	5.01.	대		5.05.	-4
1797	가정02	시헌력	5.11.	대	6	5.05.	6
1798	가정03	시헌력	4.21.	소		5.05.	-13
1799	가정04	시헌력	5.04.	대		5.05.	-1
1800	가정05	시헌력	윤4.14.	소	4	5.05.	-20
1801	가정06	시헌력	4.25.	소		5.05.	-9
1802	가정07	시헌력	5.07.	대		5.05.	2
1803	가정08	시헌력	4.18.	소	2	5.05.	-16
1804	가정09	시헌력	4.29.	대		5.05.	-6
1805	가정10	시헌력	5.09.	소	6	5.05.	4
1806	가정11	시헌력	4.20.	대		5.05.	-15
1807	가정12	시헌력	5.02.	소		5.05.	-3
1808	가정13	시헌력	5.13.	대	5	5.05.	8
1809	가정14	시헌력	4.24.	대		5.05.	-11

1810	가정15	시현력	5.05.	대		5.05.	0
1811	가정16	시현력	4.17.	대	3	5.05.	-18
1812	가정17	시현력	4.27.	소		5.05.	-7
1813	가정18	시현력	5.08.	소		5.05.	3
1814	가정19	시현력	4.18.	소	2	5.05.	-16
1815	가정20	시현력	5.01.	대		5.05.	-4
1816	가정21	시현력	5.11.	소	6	5.05.	6
1817	가정22	시현력	4.22.	대		5.05.	-13
1818	가정23	시현력	5.03.	소		5.05.	-2
1819	가정24	시현력	윤4.14.	소	4	5.05.	-20
1820	가정25	시현력	4.26.	대		5.05.	-9
1821	도광01	시현력	5.07.	소		5.05.	2
1822	도광02	시현력	4.17.	소	3	5.05.	-17
1823	도광03	시현력	4.27.	소		5.05.	-7
1824	도광04	시현력	5.10.	대	7	5.05.	5
1825	도광05	시현력	4.22.	소		5.05.	-12
1826	도광06	시현력	5.01.	소		5.05.	-4
1827	도광07	시현력	5.12.	소	5	5.05.	7
1828	도광08	시현력	4.24.	소		5.05.	-10
1829	도광09	시현력	5.05.	소		5.05.	0
1830	도광10	시현력	윤4.16.	소	4	5.05.	-18
1831	도광11	시현력	4.26.	소		5.05.	-8
1832	도광12	시현력	5.08.	소	9	5.05.	3
1833	도광13	시현력	4.19.	대		5.05.	-16
1834	도광14	시현력	4.29.	소		5.05.	-5
1835	도광15	시현력	5.11.	대	6	5.05.	6
1836	도광16	시현력	4.23.	대		5.05.	-12
1837	도광17	시현력	5.04.	대		5.05.	-1
1838	도광18	시현력	윤4.14.	소	4	5.05.	-20
1839	도광19	시현력	4.25.	소		5.05.	-9
1840	도광20	시현력	5.07.	소		5.05.	2
1841	도광21	시현력	4.17.	소	3	5.05.	-17
1842	도광22	시현력	4.28.	대		5.05.	-7
1843	도광23	시현력	5.09.	대	7	5.05.	4
1844	도광24	시현력	4.21.	대		5.05.	-14
1845	도광25	시현력	5.02.	대		5.05.	-3
1846	도광26	시현력	5.13.	대	5	5.05.	8
1847	도광27	시현력	4.24.	대		5.05.	-11
1848	도광28	시현력	5.05.	대		5.05.	0
1849	도광29	시현력	윤4.16.	소	4	5.05.	-18

1850	도광30	시현력	4,26.	소		5,05.	-8
1851	함풍01	시현력	5,07.	소	8	5,05.	2
1852	함풍02	시현력	4,18.	대		5,05.	-17
1853	함풍03	시현력	4,30.	대		5,05.	-5
1854	함풍04	시현력	5,11.	소	7	5,05.	6
1855	함풍05	시현력	4,22	소		5,05.	-12
1856	함풍06	시현력	5,03.	소		5,05.	-2
1857	함풍07	시현력	5,15.	대	5	5,05.	10
1858	함풍08	시현력	4,25.	소		5,05.	-9
1859	함풍09	시현력	5,06.	소		5,05.	1
1860	함풍10	시현력	4,16.	소	3	5,05.	-18
1861	함풍11	시현력	4,28.	소		5,05.	-6
1862	동치01	시현력	5,10.	대	8	5,05.	5
1863	동치02	시현력	4,20.	소		5,05.	-14
1864	동치03	시현력	5,02.	대		5,05.	-3
1865	동치04	시현력	5,13.	소	5	5,05.	8
1866	동치05	시현력	4,24.	대		5,05.	-11
1867	동치06	시현력	5,05.	대		5,05.	0
1868	동치07	시현력	윤4,15.	소	4	5,05.	-19
1869	동치08	시현력	4,26.	소		5,05.	-8
1870	동치09	시현력	5,08.	대	10	5,05.	3
1871	동치10	시현력	4,19.	대		5,05.	-16
1872	동치11	시현력	4,30.	대		5,05.	-5
1873	동치12	시현력	5,12.	대	6	5,05.	7
1874	동치13	시현력	4,22.	소		5,05.	-12
1875	광서01	시현력	5,03.	소		5,05.	-2
1876	광서02	시현력	5,14.	대	5	5,05.	9
1877	광서03	시현력	4,25.	소		5,05.	-9
1878	광서04	시현력	5,06.	소		5,05.	1
1879	광서05	시현력	4,17.	대	3	5,05.	-18
1880	광서06	시현력	4,28.	대		5,05.	-7
1881	광서07	시현력	5,09.	소	7	5,05.	4
1882	광서08	시현력	4,21.	대		5,05.	-14
1883	광서09	시현력	5,02.	소		5,05.	-3
1884	광서10	시현력	5,12.	소	5	5,05.	7
1885	광서11	시현력	4,23.	대		5,05.	-12
1886	광서12	시현력	5,05.	대		5,05.	0
1887	광서13	시현력	윤4,15.	소	4	5,05.	-19
1888	광서14	시현력	4,26.	대		5,05.	-9
1889	광서15	시현력	5,07.	소		5,05.	2

1890	광서16	시헌력	4.19.	소	2	5.05.	-15
1891	광서17	시헌력	4.30.	대		5.05.	-5
1892	광서18	시헌력	5.11.	소	6	5.05.	6
1893	광서19	시헌력	4.21.	소		5.05.	-13
1894	광서20	시헌력	5.03.	소		5.05.	-2
1895	광서21	시헌력	5.14.	대	5	5.05.	9
1896	개국505	시헌력	4.24.	소		5.05.	-10
1897	광무01	명시력	5.06.	대		5.05.	1
1898	광무02	명시력	4.18.	대	3	5.05.	-17
1899	광무03	명시력	4.28.	소		5.05.	-6
1900	광무04	명시력	5.10.	대	8	5.05.	5
1901	광무05	명시력	4.20.	소		5.05.	-14
1902	광무06	명시력	5.02.	소		5.05.	-3
1903	광무07	명시력	5.12.	소	5	5.05.	7
1904	광무08	명시력	4.23.	대		5.05.	-12
1905	광무09	명시력	5.04.	대		5.05.	-1
1906	광무10	명시력	윤4.16.	대	4	5.05.	-19
1907	융희01	명시력	4.27.	대		5.05.	-8
1908	융희02	명시력	5.08.	대		5.05.	3
1909	융희03	대한력	4.19	대	2	5.05.	-16
평균							-5.50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단오리는 풍속에 주목하여 과거 4대 명절로 일컬어졌던 명절이 어떠한 이유로 쇠퇴되었고 그 인식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중에 이양법의 보급과 이로 인한 농사력의 변화가 단오를 쇠퇴시켰다는 주장에 주목하여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17세기 이후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사력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수경 직파가 주류였던 조선 전기에는 단오를 전후하여 휴지기에 있었던 것이 이양법이 보편화되면서 모내기가 한철인 농번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농사력의 변화는 단오 풍속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모내기철과 단오가 어느 정도 중첩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양법이 보편화된 17세기, 즉 1653년부터 1909년까지의 역서를 토대로 망종의 일자와 단오의 일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망종과 단오는 약 30일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났으며 평균적으로는 망종이 단오보다 5-6일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지역의 모내기가 망종 전후로 하여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그 한 달 내에 단오는 거의 예외 없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양법이 보편화된 조선 후기에는 농번기와 단오가 겹쳐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단오가 축소된 모습과 지역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노비들은 하루를 쉬었고 석전과 그네뛰기 등으로 흥성거렸던 단오는 조선 후기에 오면 누에치기와 보리 베기, 그리고 모내기를 하느라 분주해진 일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이 끝난 저녁이나 아니면 낮에 잠깐 짬을 내어 그네뛰기 정도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일제 때 조사자료인 『조선의 향토오락』을 검토해 본 결과 경기 이남에서는 단오 때 그네뛰기 외에는 거의 다른 풍속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발농사가 위주인 경기 이북 지역은 대부분 그네뛰기 외에도 씨름도 함께 행해졌다. 이는 경기 이남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이양법이 보편화된으로써 단오

풍속이 쇠퇴되고 단오에 대한 명절 인식도 약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고일 2018. 6. 21.

심사일 2018. 7. 11.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단오(Dano Festival), 모내기(rice transplantation), 이앙법(seasonal customs), 이앙(traditional customs), 명절(national holiday), 수경 직파(direct sowing of wet-tilled fields), 그네뛰기(Geune Ttwigi), 씨름(Ssireum), 석전(stone slinging)

Abstract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e and Seasonal Customs: Focusing on the Spread of Rice Transplantation and Change in the Custom of the Dano Festival

Kim, Tae-woo

This study focuses on the custom of Dano and examines why the festival, which was once regarded as one of the four major festivals in Korea, declined and its popular perception changed. Particularly, I probe into the argument in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is subject that the propagation of transplantation in rice farming and the change of the farming calendar resulted in the waning of Dano, and analyze its validity empirically.

First, rice transplantation spread nationwide from the 17th century and together with it changed the farming calendar. When direct sowing of wet-tilled fields had been widely practiced in the Joseon period, Dano was accompanied with a dormant period in terms of farming activities. The change of the farming calendar is found to have been an important background factor for the decline of the Dano custom.

Next, I investigate the extent of overlapping between the rice planting period and the Dano period, using empirical data. This is done by analyzing the temporal gap between the date of Mangjong and the date of Dano from 1653 to 1909; the starting year of the analysis is chosen as rice transplantation became widespread in the 17th century. Based on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Mangjong usually came five to six days before Dano, with a maximum difference of about 30 days at times. Considering that rice transplanting in an area often took place over a period of a month around Mangjong, it is reasonably assumed that Dano would fall, with few exceptions, within the same period. Therefore, it can be proved empirically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egree of overlapping between the farming period and Dano in the late Joseon period when transplantation was the dominant method of rice farming.

Finally, I look at the decline of Dano and its regional differences in the late Joseon period. Old records show that in the early Joseon period, farm servants rested for a day on Dano, playing folk games such as stone slinging and swinging; however, in the late period, they appeared to be kept busy cutting barley, planting rice, or tending silkworms. In the circumstances, they would be more likely to take a few moments to entertain themselves by swinging during the day or in the evening after work. According to *Local Entertainment of Joseon*, a survey book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lmost no folk customs other than swinging were performed during the Dano festival in the southern Gyeonggi province. Yet,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which

focused mainly on field farming, Ssireum (wrestling) as well as swinging was practiced.

The notable difference observed between different parts of Gyeonggi supports the presumption that the custom of the Dano festival dwindled with the universalization of rice transplantation and consequently, its recognition as a major festival weakened.